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 설계 방향 탐색*

김 현 주

I. 머리말

21세기 들어 대한민국 사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다문화 현상일 것이다. 1990년대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이 유입되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귀한 손님”¹⁾ 정도였다. 그러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제결혼에 지방자치단체가 ‘작전’²⁾하듯 뛰어들자, 2005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3.6%에 달하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문화 가정과 자녀라는 생소한 말이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와 다른 모습의 며느리와 자녀의 본격적인 등장과 그로 인해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빚어지는 부적응과 갈등에 놀란 정부는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국가 정책 과제로 설정한다는 선언이었고,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였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한 문제 제기³⁾와 다문화 가족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난민 등이 다문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진주교육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1) 공익광고협의회/한국방송광고공사, 「모두 살색입니다」, 인쇄공익광고, 2001.

2)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작전」, 『한겨레』, 2007.5.8.

3) 이은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법과 사회』, 69(2022).

화 가족에 대한 법적 정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의 진행 속도와 전개 과정에 대한 당시의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다문화 대응에는 긍정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는 사회적 공감을 얻은 정책 목표가 도출되면 속전속결의 의사결정과 일사불란한 행정력이 빛을 발한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거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3년마다 실시되는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5년마다 수립되는 관계기관 합동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이후 매년 수립되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전개되었다.

다문화 사회의 이해 증진과 사회의식 변화를 위한 민간 영역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미디어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수용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공익광고이다. 공익광고는 광고라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성을 갖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의식 개선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전달되는 다문화의 일상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1년 개봉된 영화 ‘완득이’는 5백 3십만 명 이상의 관객들에게 다문화 가정의 무거운 주제를 따뜻한 감성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인공이었던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Jasmine Lee)이 제19대 총선(2012.5~2016.5)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는 것은 이 영화가 지닌 사회적 여파를 보여주는 것이다.

EBS의 382부작(2013.10.18~2021.8.13) ‘다문화 고부열전 (<https://home.ebs.co.kr/>)’도 한국으로 시집 온 다문화 여성과 다문화 여

4) 심정미,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한 고찰」,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4-2(2022).

5) 김현주,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식의 현황과 문제점 - 다문화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21-1(2015).

성을 머느리로 맞이한 시어머니를 소재로 다문화 가정의 일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2015.9.2~2019.8.12/<https://home.ebs.co.kr/>)’는 가족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와 아내를 떠나보낸 어린 자녀들의 재회를 소재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한 지 불과 10년도 안 된 2015년 9월 ‘다문화 TV(<https://tvda.kr/>)’가 개국한 것은 건강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를 향한 시민 사회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비록 다문화 시사교양 및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서구 출신의 이주민과 동남아권 출신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방식⁶⁾이나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⁷⁾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비교적 높은 시청률에 힘입어 적어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도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⁸⁾,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2018년 29.9%에서 37.9%로 높아졌고,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2015년 40.7%, 2018년 30.9%에서 16.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한국인의 다문화 지향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⁹⁾, 다양성 확대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대체로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은 38%, 어느 국가든 다양한 문화 공존이 좋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39.3%, 이주민 증가가 문화 풍부에 기여한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37.4%에 지나지 않았다.

다문화 수용성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2021년 성인(일반 국민)의 다문화

6) 「예능 속 이주민, 동남아 가난하고 서구권 유능하게 묘사」, 『연합뉴스』, 2019.12.19.

7) 「다문화 고부열전’ 차별시각, EBS 시청자위도 지적」, 『미디어오늘』, 2019.11.21.

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2022.6.28.

9)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2), 360-362쪽.

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8년 대비 0.54점 하락했고, 2012년 51.17점에서 2015년 53.95점으로 상승한 이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2021년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71.39점으로 2018년에 비해 0.17점 높아졌지만, 2015년 67.63점에서 2018년 71.22점으로 개선된 것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격차는 커졌지만 연령대가 낮아수록 그리고 다문화 교육 참여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앞으로 연령별 다문화 이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¹⁰⁾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 교육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특히 2021년 조사에서 중학생은 73.15점인 반면 고등학생은 69.65점으로 낮아졌고, 2015년 조사에서 청소년은 67.63점을 기록한 반면 2021년 조사에서 6년 전의 청소년이었던 20대의 점수가 54.40으로 하락한 것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교육이 매우 허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정부 주도의 다문화 교육정책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습 결손 방지와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의 차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문화 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용교육’의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¹¹⁾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다문화가 한 사회에 하나 이상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문화의 이해는 “각각의 문화 안에 있는 공통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경험”¹²⁾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낮은 연령대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장기적이고 더딜지언정 어렸을 때부터의 보다 습관화되고 자동적인 비편견 태도, 정체성 확장 및 다양성 수용 인식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¹³⁾에 설득력을 더한다.

1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2022.3.31.

11) 황은영, 「포용교육에 기초한 다문화교육의 재성찰」, 『글로벌교육연구』, 2-1(2010).

12) 이선아·방기혁,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2017), 839쪽.

13)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2011), 83쪽.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교육의 설계 방향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초저출산 국가가 겪고 있는 한국 다문화 사회의 지형도 변화와 이주 문명의 시대에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을 짚어보고, 둘째,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용성 증진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셋째,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에 기초하여 다문화적 연대와 협력 의식 함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II. 한국 다문화 사회의 지형도 변화와 다문화 교육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¹⁴⁾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2023)>에 출연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전년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통계를 전해 듣고 머리를 쥐어짜며 한 말이었다. 그 정도의 낮은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다. 이미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으며,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뒤로 출산율 제고에 380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지만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정되었고¹⁵⁾, 2024년에는 연초에 아기가 많이 태어나는 ‘연초 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려워 통계청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내려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¹⁶⁾

14)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 왜?」, 『이데일리』, 2023.8.24. 이 말은 2023년 6월 14일 ~ 7월 13일 방송된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조앤 윌리엄스 교수 인터뷰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인용하면서 한국의 인구 상황을 표현하는 상징처럼 되었다.

15) 「380조 쏟아붓고도 0.72명... 들쭉날쭉 지원 ‘원정 출산’만 낳았다」, 『서울신문』, 2024.2.5.

16) 「연초효과도 약화... 1월 출생아 16개월째 역대 최저」, 『YTN』, 2024.3.27.

언론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 국방 및 일자리에서 발생할 심각한 인력 누수를 경고하고 있다.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는 초·중·고 학생 수로 2040년 50.3% 급감하고, 젊은 남성이 줄어들면서 신규 병력은 43.5% 줄게 되며, 국민 총생산(GDP) 성장률은 0.9%로 하락해 0%의 성장률이 굳어질 것으로 전망했다.¹⁷⁾ 언론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국 망했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매년 30만명의 외국인을 불러들여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¹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이민정책에 눈을 돌리며 ‘출입국·이민관리청(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에 제정된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거 5년 단위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이민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왔지만, 외국인 정책이라는 말 대신에 이민정책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부터이다.¹⁹⁾ 이것은 우리나라가 더 많은 수의 외국인을 불러오지 않고서는 인구 절벽으로 초래된 국가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가 사회적 현상에서 국가적 구조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서 이민국가로의 근본적인 체제 변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민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가이다. 한국 사회의 초기 다문화 현상은 국내 상황과 맞물린 결혼 및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정책에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는 소수집단인 이주민(그들)이 적응하는 문제였을 뿐이며, 다수집단인 한국인(우리)이 적응해야 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대과제가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다문화 수용성 제고로 설정된 것도²⁰⁾ 그들의 적응을 지원하며, 우리는 그들을 수용하면

17) 「2040년 학생·군인 ‘반토막’ ... “한국 망했다” 경고 현실로」, 『서울신문』, 2023.11.10.

18) 「“한국 망했다” 소리 안 들으려면... 매년 외국인 30만명씩 받아야 산다」, 『매일경제』, 2023.12.23.

19) 「이민정책이 외국인정책이었던 이유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변천사」, 『세계일보』, 2024.3.11.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경제적 수용과 심리적 거부가 모두 증가하는 양면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한다. 한마디로 일손으로는 인정하지만 이웃으로는 거부하는 것이다.²¹⁾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세계 인재 경쟁력 순위(World Talent Ranking)’ 보고서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63개국 중 38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인재 유치 매력도(Appeal)에서는 4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도 항목은 해당 국가 경제가 외국인을 끌어들이고 지역 인재로 보유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매력도는 2018년 41위에서 49위까지 하락했다. 이것은 인구절벽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국인 유치를 강조하지만, 그에 앞서 고급 산업인력을 유인할 수 있을 만큼의 근로 및 생활환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²²⁾

2020년 세계의 팬데믹으로 변진 코로나19는 다문화 사회의 변곡점으로 작용한 듯 보였다. 감염 억제를 위한 봉쇄와 폐쇄 정책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다문화의 진행은 둔화되었고, 이미 형성된 다문화 사회도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원주민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위협을 받게 되었다.²³⁾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했던 것은 그것이 오리엔탈리즘을 소환했다는 점이다. 언론은 중국인을 바이러스의 숙주쯤으로 여기도록 하는 코로나 인종주의(corona-racism)를 부추겼다.²⁴⁾ 중국인에 대한 혐오에서 아시아인도 예외는 아니었고,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을 겨냥한 잦은 증오 범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²⁵⁾ 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 76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악화된 이주민에 대한 부정

20) 관계기관 합동,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23-2027)」, 2023. 4.

21) 「‘일꾼으론 OK’... 이민자 향한 한국의 양면성」, 『국민일보』, 2023.7.25.

22) 『해외 인재가 외면하는 한국... ‘매력도’ 63개국 중 49위』, 『국민일보』, 2023.8.9.

23) 추미화, 「코로나19 시대 다문화 사회 진단」, 『인문사회21』, 13-5(2022), 2252쪽.

24) 박선미,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오리엔탈리즘을 읽다」, 『문화교류와 다문화 교육』, 9-4(2020), 262쪽.

25) 『“아시아인 증오 멈춰라” .. 미국 60개 도시서 시위』, 『연합뉴스』, 2021.3.29.

적 인식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중국에 다문화 시대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어 국가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²⁶⁾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이주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깊은 반향을 일으킨 두 가지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것은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인간은 동일했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라는 점, 둘째, 이주의 시대에 인간에게 닥친 위기는 배척과 봉쇄가 아니라 상호 간의 연대(Solidarity)와 협력(Cooperation)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 민족과 인종, 언어와 문화, 이념과 종교 등은 그것들이 연대와 협력에 봉사할 수 있을 때만 인간의 삶과 문명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주의 시대에 우리의 다문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곧 현실이 될 이민국가의 지표로 삼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개선하여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하겠다고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²⁷⁾,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민자의 증가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배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도전적인 과제라고 천명하고 있다.²⁸⁾ 우리가 한국인의 지배적 태도 변화를 다문화 수용성 증진 교육으로 연결하려면 다음 두 가지 점을 주목한다. 첫째는 다문화 수용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표출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의 다문화 수용도가 중학생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높았다는 점을 보여준 비교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²⁹⁾

둘째, 한 사회의 편견이나 고정 관념에서 파생되는 지배적인 태도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고학

26) 기준성·김민수·최민지, 「코로나19 시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 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8(2021), 31쪽.

27) 교육부,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2023. 2.

28)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2), I 쪽.

29) 은선경,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0(2016), 692쪽.

년 어린이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이 시기에 형성되는 가치와 고정 관념은 개인의 지배적인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 세대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려면 초등학생에게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다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개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III. 국민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교육의 방향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의 지형도가 이민국가 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통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응 노력은 물론 그들에 대한 주류 사회의 수용 태도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12년에 실시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관심이 의미 있는 것은 그때까지의 다문화 정책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국민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전제로 다문화 정책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 통합의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국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의 필수 능력이라는 하지만, 그것은 추상성이 높은 정성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위요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민족과 문화의 단일성에 젖은 집단 심성 및 역사와 이념 전쟁의 배타적 집단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일관된 기준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이 수월해 보이지는 않았다.

수용성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면,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다문화’라는 용어가 유·무형의 문화는 물론 인간적 요소인 민족과 인종, 가치와 신념 영역인 이념과 종교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정의는 개별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연구자들의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요소 구성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인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으로 접근하는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로 정의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4가지 차원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첫째, 사회적 거리감, 둘째, 국민 정체성과 시티즌십, 셋째, 문화 다양성에 대한 태도, 넷째, 종족적 배제주의이다.³⁰⁾

한국인의 사회적 가치관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려는 연구에서는 분석의 종속변인을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첫째,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 둘째, 다문화 수용 태도, 즉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³¹⁾ 다문화 수용성을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그것을 두 가지 하위 요소, 즉 이주자의 보편적 권리 수용이라는 긍정적인 태도와 이주자가 초래할 위협에 대한 집합적 인지라는 부정적 태도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³²⁾ 최근 우리 사회의 혐오 만연을 목격한 한 연구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용 정도가 사회인구학적 변수, 생태학적 변수, 다양한 접촉 경험을 의미한 다문화 경험 등을 모두 합한 것만큼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변수라는 점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된 인종적, 성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편견과 혐오가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³³⁾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 감수성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적·인종적 배경의 구성원이 공존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³⁴⁾ 2012년부터 3년

30) 황정미 외,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49-50쪽.

31) 윤상우·김상돈,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2010), 99쪽.

32) 황정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2010), 178-179쪽.

33) 육주원·신형진, 「한국인의 사회적 관용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인구학』, 44-4(2021), 12-14쪽.

34)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

단위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전개 방향을 파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2년부터 시작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³⁵⁾ 아래 <표 1>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 진단 도구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첫째, 다문화 수용성을 다른 집단에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다양성, 둘째,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 및 거리와 연관된 관계성, 셋째, 세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과 관련된 보편성 등이다.

구성요소	차원	하위 구성요소	내용
	다양성	문화 개방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유입 및 정주에 대한 인정
		국민 정체성	국민 됨의 자격기준에 대해 다양성 인정
		고정관념 및 차별	외국 이주민에 대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관계성	일방적 동화 기대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 및 순응을 기대
		거부·회피 정서	이주민 접촉상황에서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
		교류 행동 의지	이주민과의 친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
	보편성	이중적 평가	경제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둠
		세계시민 행동 의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 추구 및 실천 의지
다문화 수용성 지수			위 8개 구성요소 별 측정값의 종합

<표 1.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지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성인(19~74세) 5천 명, 청소년(중·고교 학생)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청소년 점수는 상승하고 성인 점수 하락하여 <표 2>와 같이 청소년과 성인과의 격차는 더 커졌으며, 하위 구성요소 중 이주민과 친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교류행동의지’가 성

족과, 2012), I 쪽.

3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2022. 3. 31.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 설계 방향 탐색

인(38.76점)은 8개 구성요소 중 가장 낮은 반면 청소년(78.09점)은 가장 높아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청소년의 90% 이상이 ‘다문화 학생이 나와 같은 반 학생·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의미이다.

구분	2015	2018	2021		
			증감	증감	증감
성인 점수	53.95	52.81	1.14 감	52.27	0.54 감
청소년 점수	67.63	71.22	3.59 증	71.39	0.17 증

<표 2. 성인 및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변화 추이>

또한 성인과 청소년 모두 다문화교육 참여자의 수용성 점수가 미참여자보다 상승하여 교육 참여가 수용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인의 다문화 교육 참여율은 5.2%에 지나지 않아 청소년의 53.6%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은 이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줄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5	57.50	56.75	54.42	51.47	48.77
2018	55.61	55.07	53.74	51.49	48.20
2021	54.40	52.98	52.77	51.80	49.98

<표 3. 성인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추이³⁶⁾>

<표 3>의 성인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성 지수 추이를 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2018년에 비해 하락했고, 그 하락은 20대에서 40대까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청소년의 경우도 상승 점수는 미미했으며, 고등학생 점수(69.65점)는 2018년(71.08점)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여 학교급별 격차(3.5점)는 확대되었다.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교육의 성과 평가를 위한

36)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과, 2022), 51쪽.

지표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동안 다문화 교육 정책을 지원했던 정부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활동 참여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연령별 다문화 이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교류·소통 기회를 늘려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³⁷⁾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차별적 인식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의 핵심 성과지표는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차별 경험 16.3%를 2027년 13.8%로 축소하고,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점수 71.39점을 2027년 74.39점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³⁸⁾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가 다문화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다문화 수용성 조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둘째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하락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어린 나이에 교육의 효과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의 다문화 교육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V.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 교육

1. 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수용성

3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2022. 3. 31.

38) 관계기관 합동,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23~2027)”, 2023.4.

202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5,783,612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그중 초등학생 수는 2.3% 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하며,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여 전체 학생 수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³⁹⁾

초등학교는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공식적인 다문화 경험과 학습이 처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적 중요성이 매우 남다른 곳이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Piaget의 아동 발달 단계 기준으로 구체적인 조작기에서 형식적인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그들이 다수자 그룹이든 소수자 그룹이든 간에 학교생활의 적응 여부가 개인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 시기에 형성된 다문화 인식과 태도는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는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⁴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둘째,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 셋째, 다문화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다. 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초등교육에서 적용되는 환경 확대법에 기준하여 첫째, 개인과 관련된 변인, 둘째, 가정생활과 관련된 변인, 셋째,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인, 넷째, 지역사회와 관련된 변인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⁴¹⁾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신장을 위해 가정, 학교 및 지역 사회의 노력이나 독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제안⁴²⁾에 머물고 있

39) 교육부, “2023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2023. 8.

40) 이현정,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9(2018), 65쪽.

41) 이진남·김영은·이기용,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3(2013), 4-5쪽.

42) 이희숙·정제영·장수영·장선희·김재령,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도에

어 초등학생의 다문화 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내용 선정이나 교수·학습방법에 시사점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 분야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린이의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4가지 하위요인을 추출하는 경우가 있었다.⁴³⁾ 그것들은 첫째, 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다문화 관계 형성 능력’, 둘째, 외모나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관련된 ‘다문화 인식’, 셋째, 다문화 가정 및 아동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같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와 연결된 ‘다문화 개방성’, 넷째, 다문화 가정과 아동의 입장, 생각, 행동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 ‘다문화 공감’이었다. 이 작업은 다문화 가정에 한정하여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의 확대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며, 초등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와 종이 설문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인과 같은 방식의 일관된 기준으로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와 태도를 다문화 수용성과 연결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는 다문화와 관련된 공감, 인식 및 관계 형성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신장시키면 다른 문화의 특성과 차이를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⁴⁴⁾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은 교사 세대와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단계에 있는 성인들은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접했던 기억과 경험이 없는 세대이다. 반면 현재의 초등학교에는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상급학교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문화를 직접적이고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출신 배경이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2(2017), 242-243쪽.

43) 김미진·정옥분,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 발달연구』, 17-4(2010), 80-82쪽.

44) 이선아·방기현,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2017), 851쪽.

큰 또래들과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이 육성해야 하는 능력 이전에 생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가 다문화 또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현장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고도화시키려면 이와 같은 교육 현장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성인 세대가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방향

우리나라 학교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부가 매년 수립하는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이다. 2023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은 4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중 현장 다문화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제공과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을 위한 전체 학교의 다문화 교육 확대 두 가지이다.

다문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초등학교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초래되는 학습 능력 저하가 그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⁴⁵⁾

전체 학교의 다문화 교육 확대를 통한 다문화 수용성 개선에서도 일반 학생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수 그룹과 소수 그룹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이 출신 국가가 다른 소수 그룹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다국적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운영했던 교사에 따르면, 몽골 어린이들은 중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중국 국적의 어린이는 일본 국적의 어린이를, 인도 국적의 어린이는 스리랑카 국적의 어린이를 무시하는 태

45) 이수재·채진영, 「초등학교의 다문화인식의 차이와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Korean J. of Child Studies』, 36-6(2015), 34쪽.

도를 보였다고 한다.⁴⁶⁾ 어린이들의 이러한 가치와 태도는 학습된 것으로 그것은 출신 국가 어른들의 집단 심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소수자 공동체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 수용성이 다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가 지향하려는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포용교육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내용이 주류 집단 학생들이 소수 집단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 소재를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소재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 존중, 배려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단계로까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제와 발전 방향을 탐색하려는 연구는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담당하는 다문화 강사들의 교육 사례를 직접 관찰하였는데⁴⁷⁾, 교육내용은 주로 해당 국가의 전통 복식, 음식, 전통 노래와 민속놀이 등을 통해 출신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다문화 이해교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화의 사소화(trivialization) 방식⁴⁸⁾, 즉 이주민 국가의 음식, 의복, 공연 등 비교적 사소한 요소를 나열하는 손쉬운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런 방식의 교육이 현재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를 소재로 하는 교육’과 ‘다문화 교육’이 아무런 구분과 차이도 없이 다문화의 이름으로 뒤섞여 있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우려⁴⁹⁾를 자아내게 했고, 이런 우려는 다문화를 소재로 하는 학습이 교실 차원의 수업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다문화 현실이 요구하는 사회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다문화 수업에 투입되는 학습 자료들을 통해 파생되는 수업 흐름이나 동기유발이 단순히 주변 다른 나라 문화와 우리 문화 간의 공통점

46) 양영자,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과주: 한울아카데미, 2007), 218-219쪽.

47) 조형숙·이용직·이경철,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7(2017), 650-651쪽.

48) 이용승,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와 다문화』, 6-1(2016), 17쪽.

49) 하경수,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에서 사회과교육의 역할과 한계」, 『사회과교육연구』, 22-1(2015), 56쪽.

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수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는 그 사례로 아래 면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⁵⁰⁾

“요즘에는 아이들이 더 잘 안다. (...) 다문화 교육을 다음 시간에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벌써 베트남 인사, 몽골 인사, 일본어 문화 등등 어디서 배워 왔는지 쫓아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정작 수업 시간에는 딱지를 하고 관심도가 지속되는 시간이 짧다.”

-C교사, 2021.09.25. 개별 면담 중

스토리텔링이 전제되지 않는 교육자료를 통한 수업에서는 초등학생의 집중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사소화 방식으로 제시된 이국적 문화 요소에 대한 관심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베트남 인사, 몽골 인사, 일본 인사 등을 소재로 하는 수업에서 관심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다름이 전제된 각 나라의 인사말 정보를 교환하는 일차원적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인사말을 확인하는 발문에는 앎과 모름의 경계가 있을 뿐이며, 그것을 통해 학습자의 생각과 가치가 투영될 수 있는 이야기 거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업을 서로 다른 각 나라가 아니라 서로 같은 맥락의 인사에서 출발한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인사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각 나라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활동 주제로 제시된다면 그것이 짧은 시간에 딱지를 하며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각 나라의 인사말 문화가 그들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편견과 차별을 걷어내고 인사에 담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게 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발상의 전환이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다.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이 학습자의 강한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여 피드백할 수 있는 실천성을 담보하려면, 우리의 교육이 피부색, 언어, 생활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구별하여 그 다름을 이해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부모, 형제, 친구,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통해 서로의 같음을 확인하고 연대와 협력의 방향

50) 염태근·차유규, 「범교과 다문화 교육자료 개선 방안 연구」, 『교원교육』, 38-2(2022), 71쪽.

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포용 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모습일 것이다.

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설계 방향 탐색을 위해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응전 방식을 세 가지 영역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의 초기 다문화 현상은 결혼 및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는 소수집단인 ‘그들’의 적응과 다수집단인 ‘우리’의 지원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문화가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와 자녀가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부적응과 갈등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교육사업을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공적 영역의 노력과 영상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려는 민간 영역의 활동 덕분에 다문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은 좁혀지고, 단일 민족과 문화에 집착하는 집단 심성도 많이 열리고 있다. 신문 칼럼에서 “단일민족은 환상일 뿐이다.”⁵¹⁾라고 외쳐도 무덤덤해지고, 한국사 교양 강좌인 tvN의 “별거벗은 한국사⁵²⁾”에 아프리카 콩고 출신 조나단 토나 욘비가 패널로 나와 우리 역사에 말을 거는 것도 그리 낯설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초저출산·고령화의 예상이 나오자 다문화 사회의 지형도는 이민국가를 축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국의 인구 동향은 이미 뉴욕 타임즈조차 “한국은 소멸하는가”⁵³⁾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이 흑사병 창궐 수준으로

51) 「다민족 국가 시민으로 살아갈 조건」, 『한국경제』, 2024.3.28.

52) tvN, “별거벗은 한국사”, <https://tvn.cjenm.com/>

53) 「뉴욕타임스 ‘한국 소멸한’ 칼럼... “흑사병 창궐 수준 인구감소”」, 『한겨레』, 2023.12.03.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민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다문화가 사회적 현상에서 국가적 구조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서 이민국가로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응 노력 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관건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민국가의 사회통합에 기초가 되는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3년마다 4차례에 걸쳐 실시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다문화 수용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둘째, 다문화 교육이 국민 다문화 수용성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낮은 연령대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장기적이고 더딜지언정 어렸을 때부터 보다 습관화되고 자동적인 다양성 수용, 정체성 확장 및 비편견·반차별 인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그것은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습 결손 방지와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인 동시에 다문화 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용교육의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포용교육 차원의 다문화 교육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이주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여섯가족부에서도 세계의 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19가 이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줄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이민국가를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것은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인간은 동일하다는 것, 둘째는 이주의 시대에 인간에게 닥친 역경은 배척과 봉쇄가 아니라 상호간의 연

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라는 이주문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 다름과 차이를 부각시키는 민족과 인종, 언어와 문화, 이념과 종교 등은 그것이 동일한 인간의 연대와 협력에 봉사할 수 있을 때만 인간의 삶과 문명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도 다름과 차이를 보여주는 외형적인 피부색, 생활 문화, 언어, 풍습에 대한 접촉과 경험 활동을 넘어서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명의 위기를 극복한 동일한 인간이 왜 그런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인간의 삶과 문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진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교수, hjkim@cue.ac.kr

주제어(Key words)

초등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 포용적 다문화 교육(Inclusive multicultural education), 초등 실과교육(Elementary school practical education), 한국 다문화주의(Korean multiculturalism)

투고일: 2024. 4. 25. 심사일: 2024. 5. 14. 게재 확정일: 2024. 05. 14.

<국문 초록>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설계 방향 탐색**

김현주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이민 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통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응 노력은 물론 그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다문화 수용성은 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다문화 교육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설계 방향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초저출산 국가가 겪고 있는 한국 다문화 사회의 지형도 변화와 이주 문명의 시대에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을 짚어보았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용성 증진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에 기초하여 다문화적 연대와 협력 의식 함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다문화 수용성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둘째 다문화 교육이 국민 다문화 수용성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낮은 연령대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장기적이고 더딜지언정 어렸을 때부터 보다 습관화되고 자동적인 다문화 인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다문화 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용교육의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Abstract>

Investigating the Design Approach for Inclu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o Promote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Kim, Hyun Joo

Currently, in light of the population decline resulting from low birth rates and aging, our society is taking steps to transform into an immigration nation. To advance social integration in line with these transformations, it is essential to enhance not only immigrants' efforts to adapt but also the mainstream society's attitude towards them. Nevertheless, the absence of noticeable advancements in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t a national level suggests that there is still scope for enhancing our multicultural education.

Thu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design orientation of inclu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o foster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initially examined the transformations in the structure of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influenced by a significant decrease in birth rates, and the repercussions of COVID-19 on the period of migration civilization. Next, the research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education to enhance acceptance by analyzing the outcomes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survey. In the third phase, the study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and challeng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and explored the potential of inclu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o promote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It is widely agreed that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tool for promo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There are two key factors that require attention in the outcomes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survey regarding the efficacy of multicultural education. Firstly, that younger

age groups tend to have high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econdly,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people's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high level of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in younger age group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at can foster habitual and automatic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ttitudes from a young age, even if it is long-term and slow. It also confirm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must be approached from the concept of inclusive education for all students.

참고 문헌

1. 단행본

- 관계기관 합동,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23~2027)』 2023. 4.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자료: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서울: 교육과정정책과, 201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12월호.
-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2).
- 여성가족부,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2).
-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2).
- 여성가족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3).
- 이원섭 외, 『2018 다문화가족 미디어이용 실태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 논문

- 기준성·김민수·최민지, 「코로나19 시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 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8(2021), 29-57쪽.
- 김미진·정옥분,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7-4(2010), 69-88쪽.
- 김준영·이윤정, 「실과 의생활 영역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1(2012), 269-287쪽.
- 김현주,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식의 현황과 문제점 -다문화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21-1(2015), 93-109쪽.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 설계 방향 탐색

- 김희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편견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8-1(2015), 1-22쪽.
- 남경진, 「국내 다문화교육역량 연구동향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6-2(2023), 57-73쪽.
- 박선미,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오리엔탈리즘을 읽다」, 『문화교류와 다문화 교육』, 9-4(2020), 251-272쪽.
- 박혜숙, 「아동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변화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 변수의 효과」, 『교육문화연구』, 26-2(2020), 651-673쪽.
- 심정미,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한 고찰」,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4-2(2022), 71-94쪽.
- 염태근·차유규, 「범교과 다문화 교육자료 개선 방안 연구」, 『교원교육』, 38-2(2022), 55-80쪽.
- 육주원·신형진, 「한국인의 사회적 관용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인구학』, 44-4(2021), 1-18쪽.
- 윤상우·김상돈,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2010), 91-117쪽.
- 이건남,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3(2013), 1-14쪽.
- 이경애·정재영, 「식생활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실과교육연구』, 18-1(2012), 123-150쪽.
- 이남철, 「청소년들은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인들은 왜?」, 『이주와 통합』, 18(2022), 19-23쪽.
- 이선아·방기혁,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2017), 837-856쪽.
- 이선영, 「초등학생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적용 실행연구 -관계성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11-2(2016), 125-152쪽.
- 이수재·채진영,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의 차이와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Korean J. of Child Studies』, 36-6(2015), 23-38쪽.
- 이용승,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와 다문화』, 6-1(2016), 1-26쪽.
- 이은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법과사회』, 69(2022), 127-161쪽.
- 이현정,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9(2018), 63-71쪽.

- 이희숙·정제영·장수연·장선희·김재령,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2(2017), 225-248쪽.
- 정노화·윤성은·강정향·전용일, 「코로나-19 팬데믹이 체류외국인에 미친 영향 분석」, 『다문화와 평화』, 16-1(2022), 123-147쪽.
- 조형숙·이용직·이경철,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7(2017), 644-654쪽.
- 최준호·천호성, 「다문화 수용성을 위한 사회과교육의 실천전략 탐색: 교수·학습 과정안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6-2(2017), 19-34쪽.
- 추미화, 「코로나19 시대 다문화 사회 진단」, 『인문사회21』, 13-5(2022), 2251-2260쪽.
- 하경수,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에서 사회과교육의 역할과 한계」, 『사회과교육연구』, 22-1(2015), 56쪽.
- 한동균,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함양을 위한 사회과 공감기반 수업의 적용 가능성 모색」, 『사회과교육』, 62-2(2023), 113-131쪽.
- 허미순·김효심,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2-1(2019), 85-102쪽.
- 황성욱·조윤용·이철한, 「다문화수용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문화수용성 측정 지수 개발」, 『분쟁해결연구』, 12-3(2014), 167-196쪽.
- 황정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2010), 152-184쪽.
- 황창호, 정세희,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4(2019), 37-74쪽.

3. 웹 사이트(신문기사 및 사진자료)

tvN, “벌거벗은 한국사”, <https://tvn.cjenm.com/>

공익광고협의회/한국방송광고공사, 「모두 살색입니다」, 인쇄 공익광고, <https://www.kobaco.co.kr/>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다문화 교육’, 새 이름을 지어 주세요! -다문화 교육의 애칭, 대국민 공개모집-」, <https://www.kprea.kr/briefing/>

초등학교 어린이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교육 설계 방향 탐색

- 교육부,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2023. 2.
<https://www.moe.go.kr/>
-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작전」, 『한겨레』, 2007.5.8.,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4. 8).
- 「뉴욕타임스 ‘한국 소멸하나’ 칼럼... 흑사병 창궐 수준 인구감소」, 『한겨레』, 2023.12.03.,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3. 25).
- 「‘다문화 고부열전’ 차별 시각, EBS 시청자위도 지적」, 『미디어오늘』, 2019.11.21.,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4. 15).
- 「다민족 국가 시민으로 살아갈 조건」, 『한국경제』, 2024.3.28.,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3. 28).
- 「방탄소년단 “아시아인 증오 멈춰라... 진심으로 분노”」, 『세계일보』, 2021.3.30.,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3. 25).
- 「부산시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파이낸셜뉴스』, 2024.03.28.,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3. 25).
- 「“아시아인 증오 멈춰라” .. 미국 60개 도시서 시위」, 『연합뉴스』, 2021.3.29.,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3. 25).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2022. 3. 31., <https://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2022. 6. 27., <https://www.mogef.go.kr/>
- 「연초효과도 약화... 1월 출생아 16개월째 역대 최저」, 『YTN』, 2024.3.27.,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4. 8).
- 「예능 속 이주민, 동남아 가난하고, 서구권 유능하게 묘사」, 『연합뉴스』, 2019.12.19.,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4. 15).
-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 왜?」, 『이데일리』, 2023.8.24.,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3. 25).
- 「이민정책이 외국인정책이었던 이유는...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변천사」, 『세계일보』, 2024.3.11.,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4. 8).
- 「이민 확대는 미래 한국 청사진... 문제는 “오란다고 오느냐”」, 『국민일보』, 2023.7.12.,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4. 15).
- 「‘일꾼으로 OK, 이웃은 NO’... 이민자 향한 한국의 양면성」, 『국민일보』, 2023.7.25.,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4. 15).
- 「충북도, K-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위한 쟁점」, 『대전일보』, 2024.03.31.,

-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3. 25).
- 「한국 망했다」 소리 안 들으려면... 매년 외국인 30만명씩 받아야 산다」, 『매일경제』, 2023.12.23.,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3. 25).
-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점수 52개국 중 18위」, 『연합뉴스』, 2020.12.22., <https://yna.co.kr/view/>, (검색일: 2024. 4. 8).
- 「“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 美 CNN이 경고한 이유는」, 『한국경제』, 2023.12.31.,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3. 25).
- 「해외 인재가 외면하는 한국... ‘매력도’ 63개국 중 49위」, 『국민일보』, 2023.8.9.,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4. 9).
- 「2040년 학생·군인 ‘반토막’ ... “한국 망했다” 경고 현실로」, 『서울신문』, 2023.11.10., <https://v.daum.net/> (검색일: 2024. 3. 25).
- 「380조 쏟아붓고도 0.72명... 들쭉날쭉 지원 ‘원정 출산’ 만 낳았다」, 『서울신문』, 2024.2.5., <https://v.daum.net/v/> (검색일: 2024. 4. 8).